

# 뜨거운 여름 옥수수 수확 구슬땀

### 진안, 사료용 작물 수확 농작업 대행 본격화... 꼼꼼한 사전준비 완료

진안군은 대표적인 여름 사료작물 중 하나인 옥수수의 본격적인 수확 시기를 맞아 농·작업 대행단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료용 옥수수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고 품질이 우수하며 사일리지 제조가 용이해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군에서는 지난 4월 상순부터 파종이 시작돼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수확시기를 맞고 있으며, 예상면적은 170ha

정도로 이 중 100ha 내외의 규모를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업을 대행할 계획이다.

군은 읍면별 분산 파종 홍보와 함께 수확시기 도래 전 농가별 작업 일정을 사전에 조사하여 대행 작업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꼼꼼한 사전준비를 마친 상태다.

지난 26일에는 마령면 동촌리 전유남 농가가 첫 번째로 옥수수 수확 대행 작업을 신청해 8,910㎡ 면적의 옥수수 수확 작업을 마쳤다.

진씨는 "평소에도 센터로부터 농기계 임대 등 영농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무더운 날씨에 옥수수 수확 작업을 도와줘 대행단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진안군에서 양질의 사료 생산과 공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산란기 들어선 돌발해충 확산 방지 주력

### 무주군 부서간 협업, 내달 13일까지 갈색날개매미충 공동 방제단 가동

무주군이 산림과 농업, 읍면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으로 산란기에 들어간 돌발해충(이하 갈색날개매미충)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무주와 적상, 부남면은 8월 10일까지, 무풍, 설천, 안성면은 8월 3일부터 13일까지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있다"라며 "이번 산란기 방제를 통해 갈색날개매미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색날개매미충은 과수나무와 야산 주변 농작물의 수액을 흡즙해 농작물 생육을 떨어뜨리고 배설물로 그을음 병을 일으키는 돌발해충으로,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과수 1년생 가

지 속에 산란을 해 이듬해 과일이 달릴 경우 과일이 커지면서 가지를 부러뜨린다.

무주군에서는 2014년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주로 감나무, 복숭아나무, 지두나무, 배나무, 밤나무, 오미자 등 과수에 피해를 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손 잘 씻으면 감염병 70% 이상 예방 가능"

### 장수보건의료원, 여름철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 강조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손 씻기만 잘해도 감염병의 70% 이상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활속 손씻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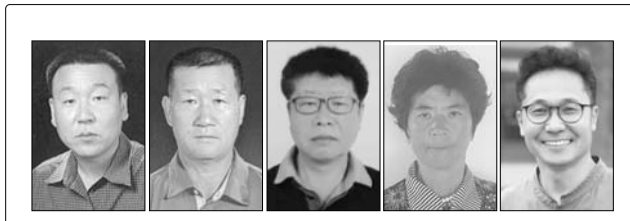
감염병이 늘어나는 본격적인 여름철

에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및 진드기·모기 매개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강조했다.

손씻기 6단계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기, 손등과 손바닥 마주대고 문지르기, 손바닥 마주대고 손 깎지 끼고 문지르기, 손가락 마주잡고 문지르기, 엄지 손가락을 다른 편 손가락으로 돌려가며 문지르기, 손바닥을 반대편 손가락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을 깨끗하게 하기 등이다.

군 관계자는 고온 다습한 여름철 유행 감염병은 철저한 손씻기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올바른 손씻기를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박기춘씨 유재홍씨 박재수씨 박선영씨 유승룡씨

# 진안 동향면민의장 수상자 선정

### 복지향상 기여 헌신 봉사 모범 되는 5명 영예

진안군 동향면(면장 전을기)은 최근 동향면민의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5개부에서 수상자 5명을 선정했다.

동향면은 오는 8월 4일과 5일 2일간 열리는 제10회 진안고원 수박축제 및 제23회 동향면민의 날을 맞아 동향면민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내고, 면민들의 소득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헌신봉사 하는 모범이 되는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수상자는 문화체육장에 박기춘(50), 산업근로장에 유재홍(57), 애향장에 박재수(59), 효열장에 박선영(43), 공익장에 유승룡(49)씨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문화체육장의 박기춘씨는 동향면 체육회 총무를 10년간 재임하면서 수박축제 뿐만 아니라 각종체육행사에서도 헌신하여 동향면 생활체육 발전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산업근로장의 유재홍씨는 동향면 웰빙수박작목반 반장을 역임하며 꾸준한 기술 연구를 통해 농가

에 많은 소득을 올리게 하였고, 수박 농가 교육에 앞장서는 등 선진농업기술 전파에 노력한 점이 인정받았다.

애향장의 박재수씨는 현재 재경동향면향우회 회원으로 향우들의 애환심을 북돋우고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등 향사 고향에 관심을 가지고, 고향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 공이 인정 되었다.

효열장의 박선영씨는 마을일을 술선수범 챙기며 바쁜 농사일 와중에도 불편하신 시어머님을 극진히 모시는 등 효행의 참 모습을 몸소 실천한 점이 인정됐다.

공익장의 유승룡씨는 동향면 봉곡교회 목사로 재직하며 행복한 노인학교 개강, 지역아동센터 유치 등 지역민들의 평생학습과 지역아동들의 육아 및 보육에 지대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동향면민의장 수상자는 8월 4일 제10회 진안고원 수박축제 및 제23회 동향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매아리

## 장수 한우량사과랑 축제 인기

장수군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장수 의암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장수 한우량 사과랑 축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현재 모집 접수중 이라고 30일 밝혔다.

첫번째로 장수한바퀴는 장수군 문화관광지를 버스를 타고 투어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족단위 관광객 및 장수군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께 장수의 주요 명소 및 관광지를 소개하고 투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족도가 높다.

두 번째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한우콘도 나르기 대회는 6명의 선수가 180kg의 콘포를 맨손으로 들고 일정거리를 돌아 출발선에 가장먼저 돌아오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으로 1등 150만원을 비롯한 총 320만원의 시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며, 박진감이 넘치는 경기로 축제 인기 프로그램이다.

적(赤)과의동침은 8월 8일까지 신청 접수중이고, 한우콘도 나르기 대회는 8월 20일 까지이며, 한우량 사과랑 가요제와 장수 한바퀴는 8월 말 까지 신청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한우량 사과랑 축제를 대표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장수군 홈페이지(www.jangsubestival.com)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축제 대표전화 352-2011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에는 'RED 컬링'과, '장수 월드체험', '사과 불꽃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으로 축제기간동안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청년 일자리 창출 앞장

무주군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공동체코디네이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 7곳과 청년 10명을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타 시군과 차별화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와 전북북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것으로, 무주군은 코디네이터 활동을 지원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선발된 10명의 청년들은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7곳의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농촌체험마을 등지에서 전문매니저로 활동하며 마을공동체 연구·조사 및 홍보·마케팅 활동을 하게 된다.

2018 무주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그간의 경험과 열정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지역과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 마이산·홍삼 알리기 '두 팔 걷어'

### 트래블마트 참가, 다양한 관광정보·기념품 제공 호응

진안군은 신비의 명산 마이산과 지역대표 특산물인 홍삼을 홍보하고 관광업계를 상대로 공동마케팅을 위해 전북트래블마트 행사에 참가했다.

지난 27일 군산 지스코에서 도내 관광객 유치 여행사와 국제관광서포터즈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관광객 유치 여행사와 B2B 여행 상담을 진행했으며 언론방송, 여행자가, 온오프라인 홍보업계 및 국제관광서포터즈에게는 마이산과 홍삼을 홍보했다.

또 특산품과 기념품을 연계한 체험관과 여행상품 기획 및 홍보 테이블도 운영하는 등 시·군과 참여업체의

자율적인 홍보마케팅의 장으로 운영됐다.

군은 마이산과 홍삼사과, 가위박물관, 명인명품관 등 청정자연과 체험시설, 지역특산물인 홍삼에 대한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했으며 현장에서 기념품도 배부해 참석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천혜의 명소인 마이산을 널리 홍보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대표관광지인 마이산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진안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진안 마이산이 전북관광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